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9(2), 33~52, 2021. 5. http://dx.doi.org/10.17279/jkagee.2021.29.2.33

한국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동남아 홀대 현상과 원인 분석
-국가주도 사회과 교육과정의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김 이 재*

Why Korean Middle School Textbooks marginalize Southeast Asia?
- Critical Reflections on Euro-centric National Curriculum of Social Studies Controlled by Korean Government -

Eje Kim*

요약: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부상했고 한국과 동남아 간 인적·문화적 교류도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남방정책으로 한국 외교에서 동남아의 위상이 주변4강국 수준으로 제고되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동남아에 대한 무시와 홀대 현상은 여전하다. 해방 직후 교수요목기에서 2015개정 국가 교육과정까지 한국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양적·질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동남아 관련 내용 비중과 변화 추이를 고찰하고, 동남아 홀대 현상의 원인을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 역사 속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였다. 연구 결과 교수 요목기에서 1차 교육과정기 사이 출판된 한국 중학교 교과서가 한국 교육사상 동남아 내용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사회과 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인 교수요목기 교과서에서는 동남아의 인문·자연 지리적 요소를 균형있게 다루며 개별 국가의 특성도 충실하게 기술하였다. 그러나 1차 교육과정 이후 정부 주도로 사회과 교육의 기계적 통합 논리가 강화되고 서구중심적인 교육과정이 본격화되면서 중학교 사회 교과서 속 동남아 비중은 계속 축소되고 동남아에 대한 고정관념도 강화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중학교 사회과 세계지리 영역의 메타지리 체계가 변화하고 부티크 다문화주의가 유행하는 가운데 한국 중학교 교과서에서 동남아의 비중은 여전히 낮고 편견은 더 심해지고 있어 국가 교육과정의 대대적 혁신이 시급하다.

주요어: 사회과 국가 교육과정, 서구중심주의, 동남아, 중학교 교과서, 메타 지리 체계

Abstract: ASEAN (Associations of Southeast Asian Nations) has emerged recently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economic partners of Korea with a sharp increase of personal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Southeast Asia. The NSP (New Southern Policy), the signature foreign policy initiative launched by Korean President Moon Jae-in, has been supposed to open a new chapter in relations with ASEAN since 2017. However many Koreans still seem to neglect Southeast Asia and expose prejudice on Southeast Asians. Analysis of contents and changing status of Southeast Asia in the Social Studies Education has been made focusing on the National Curriculum and Middle School Textbooks in Korea since 1946. The findings suggest Korean Middle School textbooks published between 1946 and 1st National Curriculum showed the highest percentage of Southeast Asian contents and detailed description of each nations with balanced approaches of human and physical geography. However, Southeast Asia

*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imeje33@gmail.com

has been marginalized under the euro-centric National curriculum and integrated Social Studies eduction controll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percentage of Southeast Asia in the middle school textbooks has been diminished since the 1st National Curriculum, while stereotypes on Southeast Asia has become stronger. Boutique multiculturalism seems to make the bad situation worse under the new meta-geographical framework introduced in the 2007 revision National Curriculum. Extensive innovat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should be made immediately to correct deeply-rooted prejudices on Southeast Asia in the Korean society and even educational world.

Key words: Social Studies National Curriculum, Euro-centrism, Southeast Asia, Middle School Textbooks, Meta-geographical framework

I. 서론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대략 230만 명으로 추산된다. 2010년 93만 여 명이던 외국인 거주자는 10년 만에 1.5배나 증가했다. 이미 단일 민족 사회가 아닌 다문화 사회가 된 한국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한 듯하다. 2020년 3월 국가 인권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사회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에 따르면 이주민 중에서 '언어적 비하'를 경험한 이는 56.1%, '기분 나쁜 시선'을 겪은 이는 43.1%로 조사됐다. 또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문화 외국인 등 이주민 관련 단어를 포함하는 트윗 1만개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노동자' 연관 단어로 '동남아, 비하, 반대, 혐오, 추방' 등이 추출됐고, '불법체류자' 연관 단어로는 '저학력, 새끼, 혐오, 결사반대' 등 단어들이 포함됐다.

한편 동남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중국에 이어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부상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국적 미취득 외국인 주민 출신국가 자료에 의하면 한국계 중국인(53만 6638명)과 중국인(22만 399명)을 제외하면 2위 베트남 (19만 7340명), 3위 태국(18만 2160명), 4위 미국(7만 8539명), 5위 우즈베키스탄(6만 2076명), 6위 필리핀(5만 217명), 7위 캄보디아(4만 5474명)의 순으로 나타나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중 동남아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동남아를 방문한 한국인이 연간 1천만 명에 육박하는 등 한국과 동남아 간 인적·문화적 교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우리가 타인을 인식하고 구분하는 데 활용하는 사회적 범주화는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믿음과 감정에 기초한다. 특히 인종은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세상을 경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편견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Eberhardt, 2019).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다문화수용성지수는 100점 만점에 52.81점(2018년 기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1] 338명의 이주민과 324명의 공무원·교원 등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종차별현상에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2], '한국어 능력(62.3%)',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59.7%)'에 이어 '출신국가(56.8%)'가 인종 차별의 주요한 사유로 나타났다. 출신국가에 의한 차별이 문화적 차이(45.4%), 인종(44.7%), 피부색(24.3%), 성별(19.9%), 종교(18.6%)로 인한 차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출신 국가 및 지역과 같은 지리적 변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해 준다.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신남방정책으로 한국 정부 및 외교 무대에서 동남아의 위상은 많이 높아졌다(김형종, 2017; 옥창준, 2019; Choe, 2021).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동남아를 비롯한 제3세계에 대한 편견과 외국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차별은 여전하다. 특히 동남아와 동남아인에 대한 무시와 홀대는 심각한 수준인데,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동남아 이주민들의 피부가 까무잡잡하다며 '똥남아'라고 비하할 정도다. "백인 혼혈은 TV 예능 출연, 동남아 혼혈은 다큐서 동정 유발"[3]이라는 신문 기사에서 보듯[4] 한국 언론과 방송사들도 동남아 및 제3세계 이주민 차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심지어 공영방송인 KBS조차 '이웃집 찰스'라는 프로그램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갈등과 차별을 지나치게 강조해 비판 받았고, 2021년 초에는 자체 제작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홍보 포스터에서 인류가 마치 흑인종에서 황인종, 백인종으로 진화하는 듯한 삽화를 제작해 인종차

별적이라는 지적도 받았다.[5]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목표로 교육방송이 제작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인 출연자가 동남아 현지 여성에게 성적 농담을 건네는 등 동남아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감 없이 드러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을 타자화하는 방송 및 동영상은 외국인과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은밀한 차별을 유도하고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확증편향 (confirmation bias)은 부정확한 믿음을 확산시키고 편견을 공고하게 만드는 매커니즘인데 (Eberhardt, 2019) 다양한 인터넷 자료들이 생성되고 유통되는 가운데 '가짜 뉴스'를 공유하며 편향된 인식을 갖게 된 사람들이 늘어나면 편견은 더 강해질 수 있다. 한국동남아연구소가 수행한 한국 청년의 아세안에 대한 이미지 연구(2017)에 의하면, 동남아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이미지는 '열대기후, 더위, 후진국, 가난, 휴양지, 관광, 여행'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동남아 사람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 여성'등과 연관시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2019년에는 유명 정치인들이 동남아 출신 노동자를 폄하하고 동남아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담긴 실언을 하는 등 외교적 결례를 반복해 문제가 되었다[6] 또한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직전에는 한국의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캄보디아 국기 오류가 발견되어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교육부가 급하게 교과서 수정 작업을 지시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다문화 교육에 많은 예산을 쓰고 정책을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에 대한 편견이 지속되거나 심지어 악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의 모든 것을 경제적 잣대로 평가하는 개발 이데올로기가 우리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까? 우리가 진정한 다문화주의자이자 글로벌 세계시민이 되려면, 특정 국가(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편견부터 없애야 하지 않을까? 본 연구에서는 국민공통기본과정으로 세계 각 지역과 국가에 대해 본격적으로 배우는 세계지리 영역을 담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교수요목기부터 2015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중학교 교과서에서 동남아 단원의 비중 변화와 서술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동남아에 대한 편견이 강화되는 맥락과 문제의 원인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과 교육과정 및 중학교 교과서 연구 배경

한국 사회과는 국가 교육과정을 둘러싸고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 간 경쟁과 영토싸움이 치열한 교과로도 유명한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사가 강조되며 지리 영역의 비중과 위상은 더욱 축소되었다. 사회과 교육과정 상에서 교과서는 다양한 수업 교재 중의 하나일 뿐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국가의 공식 인증을 받은 검증된 교재로서 교과서가 갖는 권위는 막강하다. 실제로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치자는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부터 개정하려 하였고, 한국사 교과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모든 정치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현재 한국의 국민공통기본과정에 '지리'라는 명칭이 부재하고 초등학교·중학교에서 지리를 전공하지 않은 교사들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교과서가 학생들의 세계지리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많은 학생들이 다른 국가·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사회과 교과서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메타지리 체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국정·검인정 체제 하에서 제작되는 한국의 사회과 교과서는 다른 국가에 대한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넘어 정부가 공인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식'이라는 점에서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보통 각 국가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보려면 외국 사회과 교과서를 분석하는 데, 이는 교과서에서 다루는 한국 관련 내용 서술과 이미지가 한국에 대한 그 나라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식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기초 자료라고 보기 때문이다(안지영 외, 2012, 344). 세계 각 국의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내용을 분석한 안지영 외(2012)는 한국은 역사적으로 피동적이고 타율적 국가 이미지, 전쟁국가, 분단국가 이미지가 우세하고 신흥 공업국으로 급성장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지만, 한국의 문화 이미지가 부실하여 소프트파워를 확장해나갈 기반조차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7] 하지만 한국 사회과 교과서 내에서 특정 국가나 지역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1945년 해방 직후 교수요목기부터 현행 2015개정 교육과정까지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세계지리 영역에서 동남아 내용의 특성과 변화를 양적·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사회과 교과서에서 동남아가 차지하는 비중을 페이지 수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동남아를 서술하는 내용과 관점이 지난 70여 년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후 동남아 관련 서술 내용을 지식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 사회과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교과서가 집필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서구중심적인 메타지리 체계가 사회과 교과서에 지속되어 온 배경을 고찰하였다.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 오류나 편견뿐 아니라 지리·역사·일반사회 등 각 전공 영역이 서로 경합하고 갈등하는 한국 사회과 교육의 구조적 문제에도 주목해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적 해법을 모색하고 미래지향적인 세계지리 교육을 위한 종합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사회과 동남아 관련 연구 및 세계지리 교육 동향

한국 사회과 교육에서 다른 국가나 지역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지리영역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고등학교 선택과정인 세계지리 교과서나 국민공통기본과정에 해당하는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세계지리 내용을 분석한 연구가 많았다. 김소순·조철기(2010)는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서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단원을 대상으로 내용 및 삽화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와 편견을 분석하고 특히 이슬람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기원을 추적하였다. 김민성(2013)은 르완다에 대한 수능 문항이 현재 해당 국가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교과서의 서술이 지역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하는 후투족과 투치족의 분쟁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김기남·김민성(2021)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이며 지역의 다양성을 인식하게 하고 균형잡힌 시각을 길러주는 세계지리 학습 방안을 고민하였다. 교과서뿐 아니라 수능문항이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에 주목해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역동성과 다양성을 인지하게 하는 수능평가문항 개발전략을 제안하였다. 즉 긍정적인 내용의 새로운 정보 제공, 지역 내 비교를 통한 역동성 이해, 개선되는 변화에 주목하는 지역 내 변화 양상 탐색, 의외성을 지니는 경관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대안적 문항을 구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나아가 Kim and Ryu(2014)는 학생들이 지리 교과서 분석을 통해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거나 소외된 국가의 대사관을 방문하여 그들이 원하는 교과서 내용을 구성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지리교육 분야 연구들은 특정 국가(지역)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다양한 스케일에서 지역을 조망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동안 사회과 교육과정·교과서 연구에서 동남아에 대한 관심은 제한적이었는데, 중동·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등 다른 제3세계 지역을 분석한 연구(라영숙, 2017; 조성욱, 2018)에 비해 동남아 지역에 대한 연구는 실제로 많이 부족했다. 세계지리에서 동남아 지역의 정형성을 재조명하고 교육적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김학희, 2005),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세계사 영역을 중심으로 동남아 관련 서술의 오류를 지적하는 연구(조흥국, 2007), 라오스를 사례로 TV여행 프로그램을 활용한 중학교 사회과 학습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김현주, 2018) 등이 대표적 연구에 해당한다. 특히 조흥국(2007)은 한국 중학교 사회과 세계사·세계지리 단원과 고등학교 세계사에서 동남아 관련 서술 내용과 관점을 분석해 여러 오류와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소승불교·화교 등 부적절한 단어가 쓰이는 사례를 지적한 후 정확한 용어와 표현까지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박선미·우선영(2009)은 7차 교육과정에 기초해 발행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각 국가에 대한 편견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8종을 대상으로 교과서에서 특정 국가가 언급된 회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일본, 서유럽, 북유럽, 북미 등 선진국의 비중은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비서구 지역의 비중은 매우 낮았다. 특히 동남아를 비롯한 제 3세계 국가들은 교과서에 등장하는 회수가 적고 내용 비중이 낮을 뿐 아니라 재현되는 이미지 또한 부정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한국 사회과 교과서에서 제3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왜곡되어 있었는데, 남미,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서남아시아, 동

유럽, 아프리카 국가들은 가난하고 분쟁이 잦으며 현대화가 지체되고 문제가 많은 나라로 설명되고 있었다. 실제로 서구중심주의가 강한 한국 사회과 교과서와 어린이 세계지도에서 동남아는 계속 무시되고 홀대받던 지역이었고, 심지어 다문화 교육에서도 오리엔탈리즘에 오염된 내용이 많았다(Kim, 2010; 김이재, 2013). 김학희(2010a)는 한국 다문화 교육의 메타지리를 분석하며 서구중심주의 문제를 제기하고 동남아를 '다문화 선진지역'으로 재조명하는 전략과 함께 '부티크 다문화주의(Boutique Multiculturalism)' 극복을 위해 여성주의적 다문화교육을 제안하기도 하였다(김학희, 2010b). Dittmer(2006), Hurren(2000), Kanu(2006), Robinson(2003), Willinsky(1999), Winter(2018) 등은 그동안 서구 학계 및 교육계가 문명화되고 발전적인 서양과 미개하고 저개발된 동양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서구중심주의를 계속 주입하고 강화해왔다고 주장하며 탈식민주의에 입각한 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Merryfield(2001) 역시 서구중심주의를 강화해온 서구식 학교교육을 비판적으로 해체하고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을 제안하고 있다.

III. 한국 중학교 사회교과서 속 동남아 고찰

1. 사회과 교과서에서 홀대받는 동남아: 교수 요목기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한국 교육에서 사회과 국가 교육과정과 사회과 교과서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1947년부터 교과서 국정·검인정제가 시행되면서 교과서 검열이 강화되었는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2019 개정 교육과정 전까지는 정부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발행되는 국정 교과서였기에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았다. 중학교의 경우 7차 교육과정부터 여러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제작해 검정을 받는 체제로 교과서 제도가 바뀌긴 했지만(김연옥·이혜은, 2003), 상세한 성취기준 및 집필요령에 의해 교과서를 집필하다 보니 출판사에 따라 교과서 내용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박선미, 2010). 따라서 교수요목기 이후 교육과정 시기별로 사회과 교과서 중 대표적인 2종을 선정해 동남아 비중의 변화를 추적했다.

1) 교과서 속 동남아 비중의 지속적 축소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 교과서 속에서 동남아 비중 변화를 양적으로 측정하여 변화 추이를 분석해 보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해방 직후였던 1940년대 말 교수요목기 사회과 교과서 세계지리 영역에서 동남아 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교수요목기 동남아 지역의 비중은 초등학교 10.3%, 중학교는 17.2%에 달해 우리나라 교육과정 중 역대 최고로 높았다. 1940-1950년대 중반 국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닌 한국의 노년층이 동남아 지역에 대해 가장 체계적으로 배운 셈이다.

교수요목기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동남아의 인문지리 및 자연 지리적 요소를 균형있게 서술하고 지역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비록 백과사전적 기술에 제국주의적 시선도 담겨 있지만, 동남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사진과 지도, 다양한 읽기자료가 제시되고 있었다. 당시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우며 동남아 지역에서 세력을 확대하던 시기였기에 교과서에서 동남아를 중시하고 동남아 관련 자료도 풍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교수요목기와 1차 교육과정 시기 한국은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 비해 1인당 GNP가 더 낮았고 6.25 전쟁으로 고통받던 시기였기에 당시

표 1. 초등학교·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속 동남아 비중 변화*

	교수 요목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초등학교 (%)	**10.3**	2.1	2.8	1.5	1.1	1.7	1.7	1.4	0.9	1.0	1.0
중학교 (%)	**17.2**	**5.0**	1.9	2.9	3.8	2.5	**4.1**	2.7	2.0	1.2	2.1
평균 (%)	**13.8**	**3.6**	2.4	2.2	2.5	2.1	2.9	2.1	1.5	1.1	1.6

* 동남아 내용 비중이 3% 가 넘은 시기는 굵은 색으로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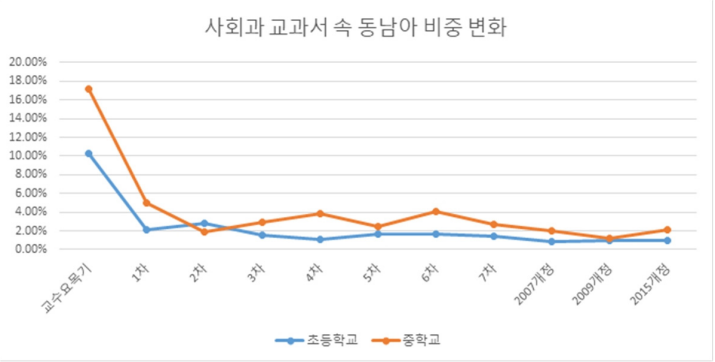

그림 1. 사회과 교과서 속 동남아 비중 변화

교과서를 통해 동남아를 배운 학생들에게는 부정적 편견이 거의 없었을 듯하다.

이후 1차 교육과정기 중학교 사회 교과서 세계지리 영역에서 동남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5%였다. 교과서 저자에 따라 동남아 지역에 대한 서술 방식과 내용 비중은 조금씩 달랐는데, 탐구당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동남아의 비중은 7%, 장왕사의 교과서에서 동남아의 비중은 4%였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선 직후인 1963년 전면 개정된 2차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강대현, 2015). 도덕·윤리 관련 내용이 급증하고 반공 교육이 강화되자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동남아의 비중은 1.9%로 급락하였다. 이후 3차 교육과정기에서 5차 교육과정기 사이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동남아의 비중은 1-3%대를 맴돌았다. 3차 교육과정기 중학교 교과서에서 2.9%였던 동남아의 비중은 4차 교육과정기 3.8%로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5차 교육과정기 2.5%로 다시 하락하였다. 6차 교육과정기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동남아 비중이 4.1%로 증가해 1차 교육과정기 수준으로 동남아의 비중이 상승했다. 하지만 7차 교육과정 시기 총론과 교육부에 의해 교과 내용 및 시수 축소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전체 사회과 교과서 내용이 축소되었고, 중학교 사회교과서에서 동남아의 비중은 다시 2.7%로 감소하였다.

한편 중학교 사회과 교육의 기초가 되는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도 동남아는 홀대받아 왔는데, 동남아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2007·2009·2015개정 교육과정기 초등학교 사회과 국정 교과서에서도 동남아의 비중은 약 1%에 불과했다. 특히 2007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한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동남아 관련 내용이 전무했고, 보조교재인 사회과 탐구에서만 동남아 내용이 일부 포함되는 수준에 그쳤다. 2007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개발되던 당시 동남아 출신 결혼 이주 여성이 급증하고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교육이 강조되던 시기였는데,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동남아 내용이 전무했던 상황은 한국의 사회과 교육이 얼마나 현실과 유리되어 있고 국가·사회적 요구를 외면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교육과정 시기별 사회과 교과서의 특징

각 시기별로 대표적인 사회과 교과서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8] 검인정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대신하던 1945-1954년 교수 요목기 『사회생활과 이웃나라 지리』 교과서를 살펴보면, 1947년 동방문화사에서 발행된 오준영의 중학교 교과서에서 동남아의 비중이 18.5%에 달해 역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어 1949년에 연학사에서 발행된 김원숙의 교과서는 이보다 동남아의 비중이 조금 낮아져 15.9%를 보였다. 하지만 1954년 1차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미국식 사회과 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며 지리 내용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지리과목에서 자연지리 단원이 과학과의 '지학' 영역으로 분리되어 편성된 영향이 컸다. 1956년 탐구당에서 출간된 노도양의 교과서는 동남아 비중이 7%, 1959년 장왕사에서 출간된 육지수의 교과서는 4%의 비중을 보여 시간이 흐를수록 중학교 사회과 세계지리 영역에서 동

표 2. 교육과정 시기별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특징 및 동남아 비중 변화*

	교육 과정 (교과서 개발체제)	적용 년도	교육과정 특징과 국가·사회적 요구	기호	출판사 (대표저자)	발행 연도	교과서명	동남아 내용 비중(%)		동남아 평균 비중 (%)
지역지리 내용체계 시기	**교수 요목기 (검·인정)**	**1945-1954**	**일제 시대의 세계지리 체계 지속 인문·자연지리 포함된 독립된 지리과목 존재**	**A**	**동방문화사 (오준영)**	**1947**	**사회생활과 이웃나라 지리**	**11/92**	**18.5%**	**17.2%**
				B	**연학사 (김원숙)**	**1949**	**중등사회생활과 지리·이웃나라**	**24/151**	**15.9%**	
	1차 (검·인정)	**1954-1963**	**미국 사회과 교육 및 사회과 통합 강조 시작**	**C**	**탐구당 (노도양)**	**1956**	**다른 나라 지리**	**14/204**	**7.0%**	**5.0%**
				D	**장왕사 (육지수)**	**1959**	**다른 나라 지리**	**9.5/265**	**4.0%**	
	2차 (검·인정)	1963-1973	반공·도덕 교육 강화	E	민중서관 (최복현)	1970	중학 새 사회 1	5.5/283	1.9%	1.9%
	3차 (국정)	1973-1981	국민교육헌장 및 국가주의 강조	F	국정교과서 (문교부)	1979	사회 1 (하)	4.5/155	2.9%	2.9%
	4차 (국정)	**1981-1987**	**동남아·남아시아 통합단원 (세계사포함)**	**G**	**대한교과서 (문교부)**	**1985**	**중학교 사회 2**	**14/370**	**3.8%**	**3.8%**
	5차 (국정)	1987-1992	내용 감축 및 사회과 통합 강화 (세계사 포함)	H	대한교과서 (교육부)	1993	중학교 사회 1	8/320	2.5%	2.5%
	6차 (국정)	**1992-1997**	**동남아 경제 협력 강조**	**I**	**대한교과서 (교육부)**	**2000**	**중학교 사회 1**	**12/296**	**4.1%**	**4.1%**
	7차 (검정)	1997-2007	내용 감축 및 국가주도 통합 사회과 체제 강화	J	중앙교육진흥 연구소 (김주환)	2008	중학교 사회 1	8.5/319	2.7%	2.7%
				K	금성출판사 (조화룡)	2008	중학교 사회 1	9/328	2.7%	
계통지리 시기	2007개정 (검정)	2007-2009	국사 교육 강화 및 역사 영역 분리·독립	L	천재교육 (류재명)	2009	중학교 사회 1	4.5/261	3.0%	2.0%
				M	지학사 (이진석)	2014	중학교 사회 1	2.5/281	0.9%	
	2009개정 (검정)	2009-2015	다문화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 증대	O	좋은책신사고 (김창환)	2014	중학교 사회 1	3/313	1.0%	1.2%
				P	천재교육 (류재명)	2015	중학교 사회 1	4/279	1.4%	
	2015개정 (검정)	2015-현재	일반사회 영역 '다문화' 관련 내용 증가	Q	천재교육 (구정화)	2018	중학교 사회 1	5.5/239	2.3%	2.1%
				R	미래엔 (김진수)	2018	중학교 사회 1	4.5/233	1.9%	

* 동남아 내용 비중이 3%가 넘을 경우 굵은 색으로 강조

남아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1963년 2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며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명칭은 『중학 새 사회 1』로 바뀌었다. 반공·도덕교육이 강조되고(강대현, 2015) 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소비에트 연방'이나 사회주의 국가관련 내용은 삭제되었다. 또한 동남아의 인도차이나 반도는 전쟁

중이었기에 학자들의 해외 지역연구는 불가능했고, 베트남과 동남아에 대한 이미지는 전쟁과 관련되어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던 북베트남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반공의식이 높았던 당시 상황에서 베트남과 동남아 관련 내용은 한국의 사회과 교과서에서 금기시되었다. 당시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에 군대를 파병했던 한국 정부로서는 베트남전을 공교육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입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차 교육과정기에 해당하는 1973년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되었고, 이후 4차-6차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문교부에 의해 집필 내용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국정 교과서 체제에서 발행되었다. 4차-5차 교육과정기 중학교 사회과에서 동남아의 비중은 2-3% 수준에 머물렀지만, 동남아와의 경제협력이 중요해진 6차 교육과정기에는 4.1%로 상승했다. 7차 교육과정기 2.7%였던 동남아 비중은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2%로 오히려 하락했다. 2015개정 교육과정기 교과서에서는 다문화 교육 관련 내용이 늘어나며 동남아의 비중이 2.1%로 소폭 상승했다.

2. 한국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속 '동남아' 편견의 기원

동남아는 한국의 최대 투자·관광 대상국이자 주요 무역 파트너로서 신남방정책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동남아 홀대 현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동남아 지역과 문화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이해도는 3박5일 패키지 관광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동남아의 비중이 높았던 교수요목기와 1차 교육과정기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이후 한국 사회과 교과서에 다루는 동남아 내용의 특성과 한계, 사회과 교과서 속 동남아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형성된 배경, 동남아 내용 서술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고자 한다.

1) 제국주의 영향을 받은 교과서 속 동남아 내용

처음 동남아에 도착한 유럽인들은 독특한 문화와 전통과 함께 열대의 정글과 오랑우탄, 코모도 도마뱀 등 동남아에 서식하는 신기한 동·식물의 존재에 감탄하였다. 또한 유럽인들은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1년에 2모작, 3모작이 가능한 열대의 농업 환경과 계단식 논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19세기 서구에서 발행된 지리 교과서와 어린이 그림 지도책에 열대 우림에 서식하는 동·식물과 쌀을 재배하는 경관이 동남아의 상징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김이재, 2013). 서구의 자본가들은 동남아에 다양한 플랜테이션 작물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는데, 17세기 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자바섬에 심은 커피, 19세기 말 영국이 브라질에서 도입해 말레이 반도에 심은 고무나무,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팜오일(기름야자)은 대표적인 플랜테이션 작물이다. 특히 고무와 팜오일은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유럽에서 꼭 필요한 산물이었고, 깡통의 원료인 주석과 함께 쌀, 아편, 사탕수수는 제국주의를 지탱하는 기초 산물이었다(강희정, 2019). 유럽 열강들의 부국강병 경쟁이 심화되며 동남아에서 이들 국가의 자원 착취 역시 본격화되었는데, 유럽의 높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현지에서 식량작물 대신 상품작물을 재배하게 강요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생활은 피폐해졌다. 현지에서 생산된 상품작물을 국제 시장 가격에 한참 못 미치는 낮은 가격에 구매하면서 식량 생산은 못하게 한 유럽인들은 결국 현지인들을 이중으로 착취한 셈이다.

1942년 동남아에서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일본은 서구 열강이 구축해 놓은 제국주의적 착취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후 1945년 8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동남아를 통치한 일본은 이 지역에 큰 영향을 끼쳤다(김종호, 2018).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대만을 할양받은 후 한반도와 만주로 진출했다. 일본군은 1937년 중일 전쟁을 수행하며 중국 대륙의 중부·남동부 지역까지 점령해 나갔지만, 수도를 충칭으로 옮긴 장제스 국민정부의 회피 전략에 말려 고전했다. 전쟁이 장기화되며 전쟁물자 조달에 어려움이 컸던 일본은 제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아시아에서의 세력 확장을 꾀했다. 1941년 12월 진주만 공습을 감행한 일본은 1942년 초 군사적 남진을 통해 홍콩과 동남아를 점령하고 '대동아공영권' 구축을 실현해 나갔다.[9] 광범위한 아시아 지역을 점령한 일본에게 동남아는 중국과 태평양 전선에 식량·인력·자본·원자재를 공급하는 핵심지역이었고, 당시 일본·한국의 지리교과서에서

동남아에 대한 설명이 충실했던 배경이기도 하다. 당시 일제는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 노동력을 동원해 고무·주석·철·석유·쌀 등 동남아에서 생산한 각종 물자를 아시아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던 전선(戰線)에 공급하였다.

1945년 8월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하고 영국이 말레이 반도를 재점령하게 되었을 때 고무는 영국인에게 미국에 대한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고 적자를 메꿔줄 주요 작물로 인식되었고, 영국이 발행한 세계지리 교과서에서 고무가 강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당시 서구 열강들에게 동남아는 고무·쌀·사탕수수·바나나 생산지로 중요했고, 세계지리 교과서에서 동남아의 특성을 설명하는 단골 소재로 활용되었다(김학희, 2005; 김이재, 2013). 1950년 당시 동남아는 전 세계 쌀과 주석의 50%, 고무의 75%, 팜 오일의 25%를 생산했고 지금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고무와 팜 오일 생산량에서 세계 1위, 2위를 다투지만 현재 동남아의 주요 수출품은 전자기기·광물성 연료·의류·정밀기기 등으로 바뀌어 있다(한아세안센터, 2021, 95). 즉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구조가 급변하면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수출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한 상황이지만 제국주의적 시선과 서구중심적 메타지리 체계에 갇혀 있는 한국의 사회과 교과서는 동남아의 새로운 현실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사회과 교육 역사상 동남아 비중이 가장 높았던 교수요목기 및 1차 교육과정기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다양한 지도와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동남아의 인문·자연환경 요소를 비교적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다. 비록 여러 가지 정보를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고 있기는 하나 동남아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균형잡힌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는 일찍이 일본이 동남아 지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한 데다가 인문·자연현상을 통합하여 지역을 이해하는 지리학의 특성이 잘 살려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19세기부터 동남아 지역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왔는데,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은 동남아를 '대동아공영권' 안에 포함시켜 해양부와 대륙부로 나누어 통치했다. 특히 말라카 해협의 요지에 입지한 싱가포르는 해양부 동남아의 중심지였는데, 1942년 2월 싱가포르를 점령한 일본은 싱가포르의 지명을 쇼난토 昭南島로 바꾸고 대동아공영권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화교 세력을 활용했다(김종호, 2018). 일제가 동남아에서 기대한 것은 산업자원, 식량, 자본이었고, 그러한 측면은 교수요목기 한국의 중학교 교과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교수요목기 중학교 세계지리 교과서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 반도를 포함해 동남아 각국의 자연환경, 문화와 종교, 특산물 등의 지역정보가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되고 있다. 하지만 1차 교육과정기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미국식 사회과의 기계적 통합 논리와 서구중심적 메타지리가 강화되며 '동남아 홀대 현상'이 시작된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식 사회과 교육의 영향을 받았지만, 일본의 사회과 지리 영역 교과서에서 여전히 동남아는 중요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1965년 교토대학 내에 설립된 동남아지역연구소(CSEAS: 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는 학제적 지역연구를 주도해 왔는데, 1940년대 식민지배 경험을 통해 동남아 지역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한 일본 정부는 1977년 '후쿠다 독트린[10]'을 선언하며 동남아 각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왔다.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와 투자를 꾸준히 늘려온 일본은 대중음악과 애니메이션, 패션 등 '소프트 파워'로 동남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21세기에는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앞세워 동남아 지역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중국의 중·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에서 동남아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2) 서구에 의한 '동남아' 지역의 형성 과정 및 지역 연구의 영향

세계 지도에 나오는 대부분의 지명과 지역구분은 19세기 혹은 20세기 정치적 편의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특히 동남아는 새롭게 발명된 지명으로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성격이 강한 지역이었다. 1940년대 미국의 연구소들이 '동남아의 미래: 인도인의 시각' 등 동남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다양한 출판물을 활발하게 발표할 무렵[11] 서구 학계·정치계를 중심으로 '동남아'라는 지명이 공식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1943년 앵글로-아메리카 퀘벡 회담 후 마운트 바튼 제독에 의해 창

설된 동남아 사령부(SEAC; South-East Asian Command)는 동남아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가시화하고 인식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였다.

서구, 특히 미국에서 동남아 지역연구의 전성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미국 역사상 유일한 4선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지도와 지리의 힘을 아는 지도자였고(김이재, 2021),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정확하고 다양한 동남아 및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지도를 제작·발행했다.[12] 1945년 미 국무성 산하에 '동남아국'이 신설되었고, 1946년 런던대에 동양·아프리카 학부(SOAS)가, 1947년 예일대에 동남아 연구 분과가 결성되며 동남아 연구가 활성화되었다(Lewis and Wigen, 1997). 한편 '오리엔탈리즘'의 저자인 에드워드 사이드는 지역연구를 '추악한 신조어(ugly neologism)'라며 혹독하게 비판했는데[13] 실제로 지역연구는 제2차 세계 대전 후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신생 독립국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지속하려는 서구 열강들의 정책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하였다(Sidaway, 2013).

만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여 '대동아공영권'이 유지됐다면, '동남아'라는 지명은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남아라는 지역 명칭은 계속 쓰였는데, 중립적인 지명이라 인도차이나, 말레이 연방, 네덜란드령 인도 등 이전 명칭에 담긴 식민주의를 극복하기에 유리했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지역을 구성하는 어느 한 국가의 정체성으로부터 비롯된 명칭이 아니었기에 정치적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웠다. 또한 지리적 위치에 의한 지명이기에 범위를 쉽게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유연성도 겸비하고 있었다. 1961년 동남아조약기구의 중심 국가인 태국과 필리핀이 말레이 반도(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해당)의 신생 국가들과 함께 구성한 동남아연합(ASA;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으로 발전하였고, 최근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협력이 강화되고 긴밀해지며 '동남아'라는 명칭이 갖는 결속력은 계속 강해지는 추세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태평양 전쟁을 수행할 당시 동남아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중시되었지만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다시 고립주의 정책으로 회귀하였다. 지역연구를 둘러싼 정치적·학문적 논쟁이 격화되며 미국에서 동남아 지역연구 열기는 시들해지며 세계지리 교육도 함께 부실해졌다(Murphy and O'Loughlin, 2009). 특히 하버드대 지리학과가 폐과되며 미국·한국에서 지리학의 위상이 낮아졌고, 사회과 교육에서도 지리영역이 위축되었다. 지리 문맹이 늘어나며 미국의 국가 경쟁력도 저하되었다(de Blij, 2012).

Ⅳ. '동남아 홀대 현상'의 원인과 교육적 해법 모색

1. 교과서 속 '동남아 홀대 현상' 문제의 원인

1) 서구중심 메타지리에 의해 축소·왜곡된 동남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세계의 생활문화와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간의 관계를, 중학교에서는 열대우림, 온대, 산지, 해안 등의 자연환경에 따른 인간 생활을, 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기후대에 속하는 지역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통합사회』는 세계 여러 지역을 대륙별, 문화권별, 경제발전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단원으로 구분하지 않고, 세계를 기후대를 중심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중단원 수준에서 사례지역을 통해 학습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2007개정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 당시 총론의 학습내용 감축 압력이 거센 상황에서 지역에 대한 편견을 줄이며 효율적으로 지역을 학습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사례지역을 통한 세계지리 교육이 고안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과서 저자들이 '열대우림 기후, 고상식 가옥, 원주민의 전통생활, 열대작물 생산지' 사례로서 동남아를 제시함으로써 동남아에 대한 편견은 완화되지 못했다. 2015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지리교육의 5대 영역 및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 총론과 사회과 교육전문가들이 교육목표·내용에 대한 거시적 성찰보다는 교육과정 형식과 문구, 교수학습법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14] 메타지리적 측면에서 교육 내용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인식조차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 학계와 교육계의 서구중심주의가 워낙 공고하다 보니(강정인, 2004), 학교 밖에서 동남아에 대한 편

견을 수정할 기회를 갖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2015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한 중학교『사회』교과서에서 동남아는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생활' 단원의 사례지역으로 환경결정론적 관점에서 제시되다 보니, 주민생활·전통문화·축제·종교 행사와 함께 동남아의 낙후된 오지와 관광지 위주로 소개되는 형편이다. 또한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로 세계를 구분하는 2015개정 고등학교『세계 지리』에서도 동남아는 남부아시아와 함께 '몬순 아시아'라는 틀에 갇혀 '낙후된 저개발지역'으로 정형화되어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2) 동남아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는 한국 언론과 미디어

오늘날 일상생활 문화 경험에서 영상과 미디어가 차지하는 위상은 높고, 그 영향력은 이전 어떤 시기보다도 크다. 학생들은 TV를 포함한 미디어를 통해 직접 가보지 않은 장소나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실제로 여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TV여행 프로그램을 참고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학습자가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국가와 지역을 탐색하고 자신이 관심있는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해 조사한 후 모둠별로 협동 학습을 수행하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김현주(2018)는 기존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지리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그 동안 사회과 교과서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동남아 국가인 라오스를 배경으로 제작된 TV 여행 프로그램을 지리교육에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는 '열대우림기후 지역이자 몬순아시아에 속하는 라오스를 배경으로 제작된 TV여행 프로그램이 세계지리 학습에 유용하다'고 주장하지만, 라오스는 열대우림 기후보다는 고산기후 특성을 보이는 지역이 더 많은 나라다. 또한 학생들이 TV여행 프로그램에 나오는 고상가옥, 소수민족의 생활, 전통 문화, 관광상품 등을 중심으로 라오스를 배우게 될 경우 동남아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 강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15] 특히 교사가 세계지리 교육의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메타지리적 성찰을 실행할 능력이 없어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가르칠 경우 문제는 더 커진다.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에서 흥미위주로 동남아를 소개한 TV 프로그램을 세계지리 수업에 도입해 가볍게 가르치면 동남아에 대한 편견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김학희, 2005; Kim, 2007).

특히 시청률을 중시하고 말초적인 재미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예능 형식의 TV 여행 프로그램인 <꽃보다 청춘>, <배틀 트립>은 EBS <세계테마기행>보다 더 이국적 경관과 흥미로운 에피소드에 집중하는 포맷이기에, 라오스의 다양한 측면, 즉, 급변하는 라오스의 현실이나 다양한 삶의 방식, 높은 문화적 수준과 경제적 발전상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즉, TV 여행프로그램은 학습자의 흥미, 관심, 필요 등을 바탕으로 능동적 지리수업을 촉진하는 교육적 잠재력도 갖고 있지만[16] 메타지리적 성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업에 투입될 경우 관광객 접근법에 머물러 동남아의 진짜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편견 제거'라는 더 높은 수준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17]

3) 문·이과를 연계하는 종합학문, 지리학의 약화: 정부가 강요하는 무리한 사회과 통합의 부작용

한국의 근대 지리교육은 근대계몽기에 태동하여 1945년 광복 후 국가 교육과정이 도입되던 시기, '교수요목기'에서 시작된다.[18] 교사가 학교 환경이나 학습자의 특성에 맞춰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것이 권장되는 오늘날과는 달리 1940-1950년대는 지리 교과서가 지리교육과정을 대신하던 시기였다. 광복 직후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교과서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폐기되었고, 미 군정청에 의해 새로운 방식의 교육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국가 교육과정이 공표되기도 전에 학교를 열어 수업을 진행하던 미 군정청 학무국의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업무는 교과서 편찬과 보급이었다. 교수요목의 제정과 그에 의거한 교과서 발행 등 교육에 대한 미 군정청의 영향이 명시적, 암묵적으로 지속되어 '미 군정청 교육과정기'로 불리기도 하는데, 지리학자나 지리교사들이 자율적으로 발행한 임시교재나 교과서를 통해 당시 한국 사회가 추구했던 가치나 인식을 엿볼 수 있다(강창숙, 2019).

교수요목기 지리교육은 우리나라 근대 지리교육사에서 광복 후 일본식 교육을 넘어 한국의 공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환기이자 오늘날 지리교육의 방향이

설정된 시기였지만 당시 교과서 및 교수·학습법에 대한 연구는 빈약했다.[19] 최근 교수요목기의 지리 교육과 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면서(강창숙, 2017a; 안종욱, 2016) 당시의 교육 현실이 조금씩 규명되고 있다. 강창숙(2019)은 문교부 교수요목에 기초해 6.25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 검정, 발행된『우리나라 지리』검정교과서에 주목하며, 북부지방을 포함한 한반도 각 지역의 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공적인 '국가지리지'로 사료적 가치도 높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식 사회과 교육에 경도된 소수의 교육 관료와 전문가들에 의해 사회과 통합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안종욱, 2016)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공학을 아우르는 종학합문으로서 지리학의 장점은 사라지고(조철기, 2016) 교육과정에서의 위상은 낮아졌다.

한국의 사회과 교육은 미국의 인적자원과 아이디어에 기초해 한국적 교육 상황과 상호작용하며 발달해 왔는데(강대현·모경환, 2013; 강대현, 2015), 미군정기 사회생활과 도입은 미국식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보급과 정치 사회화를 위한 작업이었으며, 사회과는 미국의 교육이론과 서구중심주의를 한국에 이식하는 도구였다는 분석도 있다(권오정·김영석, 2006). 실제로 6.25 전쟁 이후 도입된 사회생활과는 한국사회의 반공 이데올로기 강화에 기여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은 미국식 교육과 탐구식 수업방법의 확산을 주도하였다. 최근 한국의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쟁점중심 사회과 교육을 지향하는 가운데 시민교육으로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만(강대현, 2018; 모경환·강대현·은지용, 2016), 미국의 사회과 교육은 인문·사회과학계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채 학문적으로 발전이 정체된 무기력한 상태에 처해 있다. 특히 텍사스 등 일부 주를 제외하면 미국의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육에서 지리교육은 극도로 부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학·학교에서 세계지리 교육이 약화되며 미국의 국가 경쟁력까지 하락했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높아졌다(de Blij, 2012).

안종욱(2016)은 지리교육이 '문과'에 속하는 사회과 과목으로만 인식되어 지리학의 고유한 특성과 교육적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1950년대 초 1차 사회과 교육과정이 개발되며 자연지리 영역이 사회과에서 과학과로 이전되고, '지학'이 과학과에 신설되며 통합 과목으로서 지리가 갖는 장점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이후 교수학습모형과 개념학습 위주의 미국식 사회과 교육이 확대되고 지리교육의 핵심적인 지식과 기능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세계지리 교육 체제는 무너지게 되었다. 지리학에 무지하고 미국식 교육에 대한 환상은 컸던 소수의 교육계 인사와 행정 관료가 사회과교육 도입을 주도하고 지리·역사·일반사회 영역의 기계적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수 천 년에 걸쳐 발전한 지리학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세계 여러 지역 중에서도 자연 환경적 특성이 중요한 동남아를 사회과 교육에서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워졌고, 서구중심적인 메타지리 체계 속에서 동남아는 더 홀대받게 되었다.

실제로 동남아에 대한 서술이 충실하고 인문환경과 자연환경 측면을 균형 있게 다룬 교수요목기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와는 달리 1차 교육과정기 이후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자연지리 및 세계지리 관련 내용은 급격히 축소되었고, 한국 중학교 사회과에서 추락한 동남아 지역의 위상은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한다. 문·이과 통합교육이 강조되는 요즘, 인문 및 자연 환경적 요소를 종합하는 관점을 중시하고 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에 강한 지리학(Conway-Gomez *et al.*, 2011)을 전공한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학교 현장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 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는 지리 전공 교사는 2,058명에 불과해 일반사회 전공교사(3,337명), 역사 전공 교사(4,489명), 도덕·윤리 전공 교사(5,030명)에 비해 열세인 상황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세계지리 관련 최신 자료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사회과 교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한국 사회에 만연한 동남아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려면 학교 수업의 기본이 되는 교과서에서 동남아 관련 내용을 대폭 보강하고 최신 정보를 담은 동남아 관련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는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2. 급변하는 동남아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국 학계 및 교육계

1940-1950년대 태국·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는 한국인에게 경제가 발달하고 풍족한 국가로 인식되었지만,

1970-80년대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며 동남아 홀대 현상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특히 1990년대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며 동남아 관광객이 급증했지만 학계의 동남아 지역연구가 부실한 상황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사회과 교과서를 통해 동남아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강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오랫동안 서구 열강의 식민지배를 받은 저개발 지역, 전쟁과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는 지역, 문화적 전통과 종교 경관이 특이한 관광지를 동남아와 연결시키는 편견이 수 십 년 동안 한국의 사회과 교과서에서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는 베트남을 비롯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메콩강 유역 국가들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높고 학계에서는 서구보다 앞선 동남아 문명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하지만(Reid, 1988) 여전히 한국의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동남아는 발전이 정체된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인류학·지리학·언어학 등 순수학문을 중심으로 지역을 연구하는 유럽에 비해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미국에서 학문간 벽이 높아지며 동남아 지역전문가의 입지는 축소되었고(Lewis and Wigen, 1997), 거시적인 정치학과 미시적인 인류학이 양분하는[20] 미국의 지역연구 전통은 한국의 동남아 연구 학계에도 영향을 끼쳤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해 인문·자연현상을 종합하는 해외지역연구 전통이 강한 일본과는 달리 미국·한국 학자들은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해외 지역을 사례로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설상가상 환경확대법에 기반한 전통적인 내용구성을 고수하고 교수학습 모형에 갇힌 사회과 교육계는 제3세계의 역동적인 변화를 반영하기는커녕 유통기한이 지난 지식과 편견이 가득한 교과서를 방치해 왔다(김학희, 2005). 그 결과 교육내용과 지역에 대한 메타지리적 성찰이 부재한 사회 교과서와 다문화교재는 한국사회에서 동남아에 대한 편견을 계속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김학희, 2010a; 김학희 2010b; Kim, 2007; Kim 2010).

총 인구가 6억 6000만 명에 달하는 아세안은 국내총생산(GDP) 2조9000억 달러(약 3167조원)의 거대 단일시장으로 성장 중이다. 1967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으로 출발했지만, 1984년 브루나이에 이어 베트남(1995년), 라오스·미얀마(1997년), 캄보디아(1999년)가 차례로 가입하면서 10개국 체제가 됐다. 이후 역내 경제적 통합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2010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가 탄생했고, 2015년 말 아시아판 유럽연합(EU)을 지향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출범했다. 민감 품목을 제외한 상품 교역의 역내 평균 관세율을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췄고, 2025년까지 단일 경제권을 구현한다는 계획이어서 동남아 국가들의 통합수준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으로 주목받게 된 동남아는 2018년 들어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전략적·경제적 가치가 재조명되었다. 최근 동남아는 여러 한계에 봉착한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의 땅이자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인식되고 있다.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에 맞춰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된 것도 아세안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렸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동남아에 한류 열풍이 불면서 2019년 한국을 찾은 동남아 관광객은 연간 270만 명에 달했고, 한국과 동남아간 연 교역액은 1530억 달러(약 167조원)에 육박해 동남아는 한국에게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무역파트너로 부상했다. 최근 한국과 동남아 간 무역에서 베트남의 비중이 48%에 달하는 가운데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30%를 훌쩍 넘기고 베트남 출신 이주민·유학생이 급증하자 한국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베트남 음식과 문화에 관한 내용이 갑자기 늘었다. 교과서에서도 일종의 '베트남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중인데, 흥미위주의 관광객 접근법에 의한 피상적 다문화교육에 그칠 뿐 아니라 다른 동남아 국가에 대한 설명은 매우 부족해 균형을 잃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4위의 인구대국으로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서로 약 5,000Km가 넘는 군도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에 대한 설명은 교과서에서 찾기 어렵다. 동남아의 유일한 G20 국가이자[21] 반둥회의 개최국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은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가장 홀대받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한국의 사회과 교과서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특성과 경제적 잠재력은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의 대표 사례로 힌두교의 섬이나 관광지인 발리를 제시하는 교과서도 있

을 정도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국빈 방문한 나라였을 정도로 정부의 신남방정책에서 핵심적인 국가다. 2019년 11월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중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최종 타결되면서[22]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한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도네시아산 자동차용 강판,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의 관세를 철폐한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막대하지만, 한국 사회과 교과서에서 여전히 인도네시아는 코모도 도마뱀이 살고 열대 고상식 가옥에서 생활하는 나라로 그려진다.

한편 앞서 제시한 한국 정치인의 망언에서 드러났듯이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서 전자상거래, 핀테크, IT, 4차 산업이 낙후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 혹은 산업화된 국가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사업이 시간차를 두고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립 프로깅(leap-frogging) 현상'이 자주 목격된다. '립 프로깅'은 선진국에서 이루어지는 단계적 발전이 아니라 저개발국에서 발전 단계를 과감히 건너뛰며 빠르게 발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유선전화→무선 전화→핸드폰→스마트폰'이라는 순차적 발전 단계를 거친 선진국과는 달리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은 유선전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세계로 도약했다. 유니콘(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이 연달아 탄생하며 빠르게 성장 중인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에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사회과 교과서에서 동남아의 이미지는 '몬순 아시아, 열대우림기후 지역'으로 정체되어 있다.

3. 동남아에 대한 편견 극복과 사회과 교육 혁신을 위한 제언

1) 동서양을 연결하는 요충지로서 동남아 재조명

서양과 동양이 직접적으로 조우하기 시작한 '대항해시대'가 도래하기 이전부터 이미 동남아의 바다에서는 '상업의 시대(the Age of Commerce)'가 진행되고 있었다(Reid, 1988). 서쪽으로는 유럽의 상인들과 연결된 아랍 상인부터, 인도, 동남아, 중국을 거쳐 가장 동쪽에 위치한 일본까지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었고, 유럽 나라들이 동남아를 식민화하기 이전에 이미 동남아는 높은 수준의 문명을 형성하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동남아는 기원전부터 남아시아와 중국을 잇는 중개 무역의 요충지였고, 포르투갈·네덜란드 같은 유럽 세력이 진출하기 이전에도 말라카, 바타비아 등 동남아의 무역항은 이슬람 상인들의 활약에 힘입어 번성했다(Reid, 1988). 실제로 다양하고 역동적인 동남아의 문화적 특성은 동양과 서양을 잇는 지리적 위치에 기인한다. 아프리카의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을 연결하는 뱃길의 중심지이기도 한 동남아는 중국, 중앙아시아를 지나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대륙의 실크로드와 바다가 만나는 원조 다문화 지역이기도 하다(김학희, 2010a; 여운경, 2016). 이러한 측면은 기존 서구중심 세계사에서는 제대로 다루기 어려운 내용들이지만[23], 세계지리를 통해 접근하면 동남아의 문화적 특성과 입지적 장점이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2007개정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세계지리 내용이 계통적 주제와 지역을 결합해 사례 지역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여 지역지리가 약화되었다는 부정적 견해도 있다(박선미, 2019). 하지만 교과서 저자나 현장 교사가 지리적 상상력을 발휘해 줌인-줌아웃하며 사례 지역을 풍부한 자료와 함께 흥미롭게 설명한다면 특정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동민·최재영(2015)은 초등학교 세계지리에서 다중 스케일적 접근을 실행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동남아는 다중 스케일적 사고를 적용해 가르치기에 유리한 지역 단위이기도 하다.

2) 동남아 지역연구 및 다문화 교육에 기여하는 지리학자의 전문성 강화

한국 사회과 교과서에서 동남아 관련 내용 비중이 1%대에 머물고 그마저도 왜곡된 시선이 대부분이다 보니 한국 사회에서 동남아에 대한 편견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07개정 교육과정 이후 사회과에서 개념중심 기계적 통합 논리가 강화되고 피상적 다문화 교육이 유행

하는 가운데(김학희, 2010a; 우라미·황지현·서경혜, 2018) 다문화 낙인현상을 유발할 정도로 편견이 가득한 교과서는 전면적 혁신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서구중심적인 미국식 사회과 교육을 강요하고 동남아에 대한 편견과 오류를 방치함으로써 신남방정책에 역행해온 교육부는 급변하는 동남아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공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15개정 국가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세계사 교육과정에서 동남아 및 아프리카 지역이 사라진 상황에서(강선주, 2016) 지리 영역에서 동남아 지역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다양한 특성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편 충분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24] 국내 동남아 지역연구 분야는 해외 현지조사가 가능한 연구자의 수요는 높고 진입 장벽은 낮은 상황이다(신윤환, 2015). 특히 동남아는 현장 답사에 강하고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을 통합할 수 있는 지리학자의 장점을 발휘하기 좋은 연구 지역이기에(전제성, 2014), 지리학자 및 지리교사가 동남아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현지 조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교육계 뿐 아니라 해외 지역학 분야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3) 해외 지역연구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세계지리 교육 내용 개선

일반사회, 역사, 지리영역 교육 전문가 모두가 현재 국가주도 교육과정 개발 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정확한 지역 정보를 제대로 소개하지도 못하는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교육부와 총론이 교과 담당자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자율성을 억압하는 하향식 국가 교육과정 개발 방식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문·이과 통합과 지식의 통섭이 강조되는 시대정신에 부응하여 종합학문으로서 지리의 힘을 재발견하려는 노력은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국 교육의 미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전공 교사와 비전공 교사에 의한 지리수업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박선미,2004)에 의하면, 비전공 교사가 지리를 가르칠 경우 문제가 증폭될 수 있다. 즉, 학습주제를 전환하고 학습자의 질문을 활용하는 능력, 지도를 읽고 활용하는 능력, 인문·자연 현상을 통합해 설명하는 능력 등이 부족하다 보니 편견이 많은 기존 교과서에 의존해 주입식 암기교육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사가 참신하고 흥미로운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자신감 있게 가르치게 하려면 교사 양성· 재교육 과정에서 세계지리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과 교과서 집필 및 검토 과정에서 동남아 지역전문가를 비롯한 해외 각 지역을 연구해온 학자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필수화하고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개방적인 플랫폼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 또한 교사 양성 과정 및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에서 동남아 지역의 최신 동향과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세계지리 교육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해방 직후 교수요목기에서 2015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까지 한국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동남아 관련 내용 비중의 변화 추이를 고찰하고, 동남아 홀대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 요목기에서 1차 교육과정기 사이 출판된 한국 중학교 교과서가 한국교육사 상 동남아 내용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미국식 사회과 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인 교수요목기 교과서에서는 동남아의 인문·자연 지리적 요소를 균형있게 다루며 개별 국가의 특성도 비교적 충실하게 기술되고 있었다. 둘째, 정부 주도로 사회과 교육의 기계적 통합논리가 강화되고 개념중심 내용 구성이 강조되며 세계 지리교육이 약화되고 동남아 지역의 비중이 급격히 낮아졌다. 또한 1차 교육과정기 과학에서 '지학'이 신설되고 지리학의 자연지리 내용이 '지학' 쪽으로 분리되어 나가면서 사회과 교육 내에서 인문 및 자연 현상을 아우르는 지리학의 장점을 살리기 어려워졌다. 셋째, 한국 학계와 교육계에서 서구중심적인 메타지리 체계가 비판적 성찰 없이 그대로 수용되면서 미국, 영국과 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1세계, 영국 식민지였던 호주,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진 반면 비서구지역인 제3세계의 비중이 급속히 축소되었다. 베트남전 이후 미국에서 동남아 지역연구

에 대한 관심이 급감하고 한국 사회에서 반공주의가 강화되며 동남아 지역연구 환경은 악화되었다. 설상가상, 사회과 교과서와 방송 프로그램이 동남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방치하고 급변하는 동남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동남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문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해방 직후인 교수요목기, 즉 지금부터 60-70년 전에 동남아 지역을 바라보는 제국주의적 시선과 내용이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어, 사회과에서 동남아 관련 관점과 내용의 전면적 교체와 교수학습 소재의 혁신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한국 교육현장에서 유행하는 관광객 접근법이나 피상적 다문화교육은 다문화 가정과 학생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우라미·황지현·서경혜, 2018; Kim, 2010). 오리엔탈리즘에 오염된 콘텐츠로 동남아 문화를 피상적으로 소개하는 교육방식은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김학희, 2010a).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급변하는 현실을 제대 반영하지 못하는 교과서는 동남아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이미지를 오히려 강화할 위험성도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다문화 관련 교육과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동남아 출신 이주자나 다문화 학생에 대한 차별적 시선은 여전하며, 최근에는 '다문화 낙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동남아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동남아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과감한 사회과 교육과정의 혁신과 특단의 세계지리 국민 재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 시기별 중학교 사회과를 중심으로 동남아 비중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했기에 시각 자료나 서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동남아 이외의 다른 지역(국가)에 대한 교과서의 편견을 분석하는 연구, 사회과 교육을 넘어 도덕(윤리), 과학, 미술, 영어 및 외국어 등 다른 교과서 내용을 메타지리적으로 성찰하는 연구, 교육과정 시기별 사회과 교과서의 특성을 고찰하고 교과서 저자에 따른 서술 내용, 지도와 이미지 등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 및 용어의 오류를 발견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초·중·고 교육과정의 계열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교대·사범대학의 교원양성 및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세계지리 교육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커리큘럼 개발도 시급해 보인다. 나아가 언론이나 미디어, 관광 상품을 통해 재현되는 동남아의 왜곡된 이미지와 편견을 분석한 후 이를 완화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사

한국의 오래된 사회과·지리 교과서를 입수하는 데 도움을 주신 미래엔교과서박물관 관계자 및 이지영 박사, 한국 사회과·도덕과 전공별 교원 현황과 관련된 최신 통계를 정리하고 공유해 주신 박종희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

1)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차별, 일방적 동화 기대, 거부·회피정서, 교류행동의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행동의지 등 8개 지표를 점수로 환산해 3년 주기로 평가가 이뤄지는데 2012년 첫 평가에서 51.17점, 2015년 53.95점 등 50점대 초반을 기록했고, 2021년 평가에서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진한·김금이, '"백인혼혈은 예능, 동남아혼혈은 다큐" …차별에 멍드는 다문화2세' 매일경제신문, 2021. 5. 4. 출처: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5/432154/)
2) 국가인권위원회, 2019,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법제화연구.
3) 스튜디오에 모여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이나 한국에서 여행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프로그램에는 주로 서구권 출신의 이주민이 등장한 반면, 한국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갈등을 빚으며 도움을 청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동남아권 출신 이주민이 등장했다는 문제제기다. 실제로 한국을 처음 와본 외국인이 국내를 여행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의 경우, 동남아권 출연진은 1명도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캐나다는 20명, 유럽권(러시아 포함)은 33명 출연했다. 반대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을 다루는 '다문화 고부열전'은 주인공 12명 중 10명이 동남아권 출신이었다. (이진한·김금이, '"백인혼혈은 예능, 동남아혼혈은 다큐"…차별에 멍드는 다문화2세' 매일경제신문, 2021. 5. 4. 출처: https://www.mk.

co.kr/news/society/view/2021/05/432154/)

4) 민언련은 TV 프로그램 속 차별을 '동화주의, 무례함, 가난을 전시하는 방송, '다문화'란 단어의 오용, 언어적 위계화, 계층 차별 관념, 성 역할 고정관념' 등으로 범주화했다. 예를 들어 동화주의는 한국 음식을 잘 먹는 이주민을 보고 "한국 사람이 다 됐네" 같은 표현을 쓰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불쾌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5) 2021년 2월 특집 다큐멘터리 '호모 미디어쿠스' 포스터에서 미디어 사용의 변화를 인류의 진화과정에 빗댄 일러스트를 제시했는데, KBS는 시청자들이 포스터에 대해 "인종차별인 이미지"라는 비판을 제기하자 포스터를 수거해 재배포했지만 언론 및 미디어 업계 종사자들의 인식 속 인종주의적 차별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해프닝이었다.

6) 2019년 9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3개국 순방에 대해 "경제가 위기상황으로 치닫는데 대통령은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간다. 더 배꼽을 잡는 건 후진국에 가서 4차 산업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해 동남아의 급변하는 현실에 무지한 정치인의 한계를 노출했다. 2019년 6월에 한국의 유력한 당대표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은 임금 수준을 주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처를 주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기도 했다.

7) 외국 사회과 교과서에서 한국의 단절적이고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독일 정부가 추진한 괴테문화원, 최근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공자학원의 사례를 제시하며 국가적·학술적·민간적 차원에서 전방위적이고 다층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8) 각 교육과정 시기에 가장 많이 채택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을 선정하여 동남아 내용 비중의 평균을 내는 방식을 실행하였다.

9) 군정(軍政)을 싱가포르에 두며 동남아시아 전역을 관리하였다. 크게 '갑'(甲)과 '을'(乙)이라고 명명한 두 권역으로 분할하였는데,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경우 '을', 영국령 말라야, 해협식민지(싱가포르, 페낭, 말라카),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해양 지역은 '갑'에 해당하였다. '을' 지역은 프랑스가 일본의 동맹인 독일에 의해 점령된 상태였기 때문에 기존 식민지 통치 시스템을 유지하는 간접통치 방식을 적용하였고, '갑' 지역의 경우 적국인 연합군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직접통치 방식을 적용하여 그 지배 방식을 구분하였다(김종호, 2021).

10) 후쿠다 다케오 일본 총리는 1977년 동남아 6개국 순방을 필리핀에서 마무리하며 "일본은 군사 대국이 되지 않을 것이며 아세안 회원국들과 정치·경제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마음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진정한 친구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11) Lennox Mills (ed.), 1943, "Southeastern Asia and the Philippine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226); Charles A. Fisher, 1966, South-east Asia: A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Geography, 2nd ed. (London: Methuen), p. 746.

12) National Geographic Society는 1941-1944년간 발행한 2천 만장에 달하는 지도 중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도가 집중적으로 제작되었다. 미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을 정확하게 표현한 지도를 통해 미국인들은 일본 육군, 해군, 공군의 동태를 추적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군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었다.

13) Said, Edward W., 1978, Orientalism, Western Concepts of the Orient, P. 53

14) 김현주(2018)는 TV여행프로그램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로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고, 여행자가 학습자를 대신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세계 지역 학습 과정에서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세계테마기행>, <꽃보다 청춘>, <배틀 트립> 등의 TV여행프로그램 속 라오스를 사례로 들어 2015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선정된 지리인식 및 장소와 지역,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인문환경과 인간생활, 개인의 행복에 대한 성찰, 세계시민으로서의 태도 등의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세계 지역 학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타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갖춘 여행자가 출연하는 TV여행프로그램은 세계화·다문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세계시민의 모범을 보인다는 점에서 지리교과에서 다소 간과해왔던 가치·태도 등의 정의적 영역을 보완할 가능성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15) 김현주(2018) 역시 '2009년부터 2018년 사이 약 10년 동안 8회에 걸쳐 <세계테마기행>에서 라오스를 다루고 있지만, 주제와 여행지는 유사한 측면이 많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청춘, 순수, 과거' 등 라오스에 대한 대표적인 장소 이미지에 맞춰 프로그램을 제작하다 보니 불교 도시 루앙 푸라방, 방비엥 등 인기 관광지에서의 활동과 함께 탁발, 소수 민족, 고상가옥 등 한국 시청자들에게 이국적인 경관을 주로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다.

16) 연구자는 2012년 말 EBS 세계테마기행 '사랑의 섬, 수마트라' 편을 시작으로 아프리카, 유럽, 동남아시아 지역 큐레이터로 여러 차례 출연했지만, 시청자들의 원하는 이국적인 풍경과 현지 문화를 소개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오히려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해서 아쉬움이 컸다.

17) '열대 우림기후 지역의 위치를 파악하고, 열대 우림기후 지역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조사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다양한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생활 모습을 조사함으로써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도 다양한 경제활동과 생활 모습

이 있음을 파악하여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 관한 획일화된 이미지와 사회적 편견을 바꾼다"는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18) 미군정기 문교부가 공포한 중학교 사회생활과 교수요목은 초급중학교(현 중학교에 해당) 편제에서 지리는 1학년 『이웃나라 지리』, 2학년 『먼 나라 지리』, 3학년 『우리나라 지리』로 구성되었다. 고급중학교(현 고등학교에 해당)는 4·5학년 필수 과목으로 『자연환경과 인류생활』이, 선택 과목으로 『특수 경제지리』의 계통지리가 배치되었다. 이는 초등학교에 이어 초급중학교에서 학습한 각 지역(국가)의 생활이 고급중학교 단계에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상호관계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계열성을 고려한 교육적 설계였다(강창숙, 2017b).

19) 그동안 미군정기 혹은 교수요목기 지리교육에 대한 학문적 고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당시의 중등학교 교수요목이 발행되지 않거나 현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소수의 연구조차 지리교육 전공자가 아닌 일반사회과 전공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0) 인도차이나에 대한 워싱턴 정부의 개입이 심화되던 1962-64년은 정치학이 동남아 지역연구를 주도했고, 구정(Tet) 공격이 감행된 1968년 정치학자들의 동남아 연구가 피크에 달했다.

21) 인도네시아는 2억7000만 인구의 87%가 무슬림인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이자 할랄 시장이기도 하다. 300개가 넘는 종족과 600개 이상의 방언을 사용되어 문화적으로 다양성이 넘치는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초대 대통령 수까르노(Sukarno) 때부터 동남아 지역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였고 아세안(ASEAN)이 태동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큰 외교력을 발휘하였다.

22)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하지만 양국 간 상품·인력이동뿐만 아니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하는 무역협정이다. 인도네시아는 CEPA 타결로 한국에게 전체 상품 중 93%를 개방하게 되는데, 이는 '한-아세안 FTA'를 통한 상품 개방 수준인 80.1% 보다 약 13%포인트 높은 수치다.

23) 2015개정 고등학교 세계사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아예 동남아 및 아프리카 지역의 역사가 삭제되었다. 역사교육 전문가들은 한국과 교류가 많고 다문화 교육에서 중요한 동남아가 세계사에서 사라지면서 나타날 교육적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강선주, 2016; 이은정, 2017).

24) 국내에서 해외지역연구 분야는 1990년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요 대학에 국제대학원이 신설되며 강화되는 듯 했으나, 국제통상과 국제협력 프로그램이 지역연구 전공을 압도하고 전임교원 임용이 지체되며 학문 후속세대 육성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전제성·이재현, 2008; 전제성, 2014). 그 결과 국내 대학에서 동남아 관련 전공은 여전히 희소한데, 동남아 지역 및 개별국가 명칭이 포함된 전공이 개설된 대학은 서울대, 한국외대, 부산외대, 영산대, 청운대 등 5개 대학에 그치고 있다. 반면 중국 관련 전공은 190개, 일본 관련 전공은 168개에 달해 극심한 불균형 상태를 보인다(하채균, 2018, 17-19).

참고문헌

강대현, 2015,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양상: 교수요목기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사회과교육, 54(1), 63-89.

강대현, 2018, "종합적인 시민교육을 위한 사회과 목표 제시 전략", 시민교육연구, 50(1), 1-28.

강대현·모경환, 2013,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과정과 양상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교육연구와 실천, 79, 1-23.

강선주, 2016, "초·중학교 세계사 교육의 현황과 쟁점 -2015 개정 역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서양사론, 131, 9-47.

강정인, 2004,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 아카넷.

강창숙, 2017a, "미 군정기 중학교 지리과 교수요목의 내용과 특징", 대한지리학회지, 52(2), 245-263.

강창숙, 2017b, "교수요목에 의거한 고급 중학교 지리교과서 『자연환경과 인류생활』의 내용체계와 특징",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51-68.

강창숙, 2019, "미군정기 초급중학교 『우리나라 지리』 교수요목과 검정교과서 내용체계의 특징",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7(2), 37-58.

강희정, 2019, 아편과 깡통의 궁전, 푸른역사.

권오정·김영석, 2006, 사회과 교육학의 구조와 쟁점, 교육과학사.

김기남·김민성, 2021, 세계지리 시험 문항이 추동하는 지역 편견의 문제와 대안적 문항 구성 전략,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9(1), pp. 119-132.

김민성, 2013, 비판적 세계시민성을 통한 지리 교과서 재구성 전략: 르완다를 사례로, 사회과교육, 52(2), 59-72.

김소순·조철기, 2010,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및 편견 분석: 서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단원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58(3), 87-112.

김연옥·이혜은, 2003, 사회과 지리교육연구, 서울:교육과학사.

김이재, 2013, "어린이 세계지도의 메타지리적 특성 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1(2), 1-16.

김이재, 2021, 부과 권력의 비밀, 지도력, 쌤앤파커스.

김종호, 2018, "싱가포르 화교은행(OCBC)과 동아시아 전시체제: 동남아 화상(華商) 기업의 전시(戰時) 위기 대응과 생존", 史叢, 93.

김종호, 2021, 화교이야기, 너머북스.
김학희, 2005, 세계지리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정형성에 대한 재조명,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학희, 2010a, “진정한 다문화 교육을 지향하며: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대안적 관점 탐색”, 교육논총, 30(1), 31-47.
김학희, 2010b, 부티크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한국 다문화교육에 대한 메타지리적 성찰, 다문화교육, 1(2), 63-79.
김현주, 2018, “TV여행프로그램을 통한 세계 지역 학습의 가능성 탐색: <세계테마기행>과 <꽃보다 청춘>, <배틀 트립>속 ‘라오스’를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6(4), 79-98.
김형종, 2017, “한국의 아세안 연구: 아세안학의 모색?”, 아시아리뷰, 7(1), 199-225.
라영숙, 2017,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재현된 이슬람 지역: 교수요목시기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지리영역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모경환·강대현·은지용, 2016,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화와 쟁점”, 시민교육연구, 48(1), 1-30.
박선미, 2004, “비전공 교사에 의한 지리 수업 운영의 특성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9(4), 620-632.
박선미, 2010, “사회과 교육과정 구조가 교과서 다양성에 미친 영향”,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8(3), 251-267.
박선미, 2016, “우리나라 사회과교육과정의 통합구조 변화에 따른 지리교육의 목표와 내용 변화 : 중학교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1(6), 935-955.
박선미, 2019, “중학교 지역지리 교육내용 조직의 특징과 문제”, 한국지역지리학회 엮음, 새로운 지역지리학과 지리교육, 푸른길, 270-288.
박선미·우선영, 2009,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국가별 스테레오타입: 제7차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중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8(4), 19-34.
신윤환, 2015, 한국의 동남아 연구: 반성적 회고, 동남아시아연구, 25(4), 37-76.
안종욱, 2016, 지리교육과정의 기원을 읽다, 푸른길.
안지영·박소영·정재윤, 2012, “외국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이미지”, 정신문화연구, 35(1), 343-381.
여운경, 2016, “경계 넘기와 새로운 시각의 모색: 2012-2015년 동남아시아사 연구 동향”, 역사학보, 231, 377-398.
옥창준, 2019, “남방정책의 계보학: 아세안민족반공연맹부터 신남방정책까지”, 황해문화, 2019 가을호, 62-82.
우라미·황지현·서경혜, 2018, “한국의 다문화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과학연구, 49(2), 59-88.
이동민·최재영, 2015, 다중스케일적 접근의 지리교육적 의의와 가능성: 초등사회과 세계지리 영역에서의 지역 인식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3(2), 1-17.
이은정, 2017, “『세계사』 교과서 속의 오스만 제국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육, 142, 159-191.
전제성, 2014,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 현황과 지리학의 기여 가능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4).
전제성·이재현, 2008, “한국의 동남아학 교육과정과 지역연구자 육성모델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18(2).
조성욱, 2018, “아프리카에 대한 지역인식 변화를 위한 지리교육과정 구성방법”,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6(1), 73-87.
조철기, 2016, 지리 교과 내 융합 교육과정 및 융합적 사고에 대한 탐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3), 47-63.
조흥국, 2007, “동남아시아의 약동과 다양성을 얼버무리는 교과서”, 이옥순 외, 오류와 편견으로 가득한 세계사 교과서 바로잡기, 서울: 삼인, pp. 81-146.
하채균, 2018, “한-아세안 협력의 ‘약한 고리’: 한국의 동남아시아 교육”, 한아세안센터 아세안 토크, 2018-07.
한국동남아연구소, 2017,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인식, 서울: 한-아세안센터.
한아세안센터, 2021, 한-아세안통계집, 한아세안센터 자료실.
Choe, W., 2021, “New Southern Policy”: Korea’s Newfound Ambition in Search of Strategic Autonomy, *Asie.Visions*, No. 118, Ifri, January 2021.
Conway-Gómez, K., Williams, N., Atkinson-Palombo, C., Ahlqvist, O., Kim, E. and Morgan, M., 2011, Tapping Geography’s Potential for Synergy with Creative Instructional Approaches,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5(3), 409-423.
de Blij, H., 2012, *Why Geography Matters: More Than Ever*, Oxford University Press
Dittmer, J. 2006, Teaching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gions in regional geography courses: Or, why do vampires come from Eastern Europe?, *Journal of Geography in Highter Education*, 31(1), 49-61.
Eberhardt, J. L., 2019, Biased: Uncovering the hidden prejudice that shapes what we see, think and do, Penguin Books.
Hurren, W., 2000, *Line dancing: An atlas of geography curriculum and poetic possibilities*, New York: Peter Lang.
Kanu, Y., (eds), 2006, *Curriculum as cultural practice: postcolonial imagination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Kim, H., 2007, Does Geography ‘really’ contribute to ESD?:

Critical reflections on meta-geographical frameworks in World Geography, *Geographiedidaktische Forschungen*, 42, 66-72.

Kim, M.. and Ryu, J., 2014, Listening to others' voices (LOV) project: An empowering strategy incorporating marginalized perspectives, *Journal of Geography*, 113(6), 247-256.

Kim. E., 2010, Beyond tokenistic multiculturalism in Brooks, C. (eds.), *Studying PGCE Geography at MLevel: Reflection, research and writing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pp. 112-121, London: Routlege.

Lewis, M. W. and Wigen, K. E., 1997, *The myth of continents: A critique of metageograph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erryfield, M, M., 2001, Moving the center of global education: from imperial world views that divide the world to double consciousness, Contrapuntal pedagogy, hybridity, and cross-cultural competence, in Stanley, W. Bl. (eds.), *Critical issues in social studies research for the 21st Centry*, Information Age Publishing, Charlotte, 179-208.

Murphy, A. B. and O'Loughlin, J., 2009, New Horizones for Regional Geography,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 50(3), 241-251.

Reid, A., 1988,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Yale University Press.

Robinson, J., 2003, Postcolonialising geography: tactics and pitfalls,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24(3), 273-289.

Sidaway, J. D., 2013, Geography, globalization, and the problematic of area studi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103(4), 984-1002.

Willinsky, J., 1999, *Learning to divide the world: Education at empire' world*, Mi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Winter, C., 2018, Disrupting colonial discourses in the geography curriculum during the introduction of British Values policy in schools,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50(4), 456-475.

<분석 대상 중학교 교과서>

A: 오준영, 1947, 사회생활과 이웃나라 지리, 동방문화사
B: 김원숙, 1949, 중등 사회생활과 지리- 이웃나라, 연학사
C: 노도양, 1956, 다른 나라 지리, 탐구당
D: 육지수, 1959, 다른 나라 지리, 장왕사
E: 최복현, 1970, 중학 새 사회 1, 민중서관
F: 문교부, 1979, 사회 1 (하), 대한교과서
G: 문교부, 1985, 중학교 사회 2, 대한교과서
H: 교육부, 1993, 중학교 사회 1, 대한교과서
I: 교육부, 2000, 중학교 사회 1, 대한교과서
J: 김주환 외, 2008, 중학교 사회 1, 중앙교육진흥연구소
K: 조화룡 외, 2008, 중학교 사회 1, 금성출판사
L: 류재명 외, 2009, 중학교 사회 1, 천재교육
M: 이진석 외, 2014, 중학교 사회 1, 지학사
O: 김창환 외, 2014, 중학교 사회 1, 좋은책신사고
P: 류재명 외, 2015, 중학교 사회 1, 천재교육
Q: 구정화 외, 2018, 중학교 사회 1, 천재교육
R: 김진수 외, 2018, 중학교 사회 1, 미래엔

접 수 일 : 2021. 05. 17
수 정 일 : 2021. 05. 28
게재확정일 : 2021. 05. 28

교신: 김이재, 1391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kimeje33@gmail.com, 031-470-6223)
Correspondence: Eje Kim, kimeje33@gmail.com